

釜山廣域市宗親會 會長團會議

부산광역시종친회

회장단회의

부산종친회(회장權吉相)는 지난 7월5일 오후6시30분 연산로타리 소재 웨담뷔페 8층에서 權宗甲 權永漢 고문을 비롯해 6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權正守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始祖 太師公 에 대한 망배와 故 權泰柱 夫人위원회 목념으로 시작하였다.

권길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3일 제36차 정기총회는 전 부산종친들의 단합된 모습을 잘 보여준 결과였으며 종친님들의 물심양면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하였다.

특히 도시락 타올 등과 과분한 협찬금을 주신 고문, 부회장 께 극찬을 드린다고 하였으며 총회결과보고(總會經過報告)는 재혁(載赫)사무국장의 유고로 총입출금의 내용만 회장이 보고 드리게된 점 약해 비판했다고 하였다

우리 부산종친회가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임원님



△부산종친회 회장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길상회장.

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의 덕분임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 시조님의 추향(秋享,12월2일)시에도 많은 족친께서

참향(參享)을 함께 하자면서 종친님들의 하시는 사업변창과 건승을 빌었다. (부산종친회)

제64차 마창진 정기총회

제 64차 안동권씨 마창진종친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5월20일 오전11시에 마산 어시장 해맑은 수산횟집에서 권재희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재일씨의 개회 선언에 이어 태사공 망배로 시작했다.

이날 총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길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회장은 인사말로 참여해주신 많은 족친들과,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준 부인회 권수연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종친회의 주축이 되는 화요회 모든 분들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모,저모를 살피고 챙겨준 권문발전회와 청·장년회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아울러 신임 권태영 회장은 앞으로 더 멋진 마창진 종친회가 되길 확신하며 마창진 종친회 족친들의 숙원 사업인 회관 건립을 추진 할 것을 발표하면서 족친들께 협조 당부 하였다.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임회장 권태영 △부회장 오수 △사무국장 재희 △재무국장 정철 △감사 영훈 오웅 (권재희 사무국장)

안동시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2012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평가한 2012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FTA기금사업 연차평가는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과수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 54개 사업계획(지자체)을 2012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의한 사업추진 계획대비 실적평가·평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금년 연차평가 전국 최우수



권영세 시장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3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생산시설비 30% 증액 및 인센티브 1,500만원 지원과 해외선진지 견학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 다가올 한·중, 한·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과수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및 수출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과수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동사과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주산단지로서 3,171농가에서 2,976ha에 사과를 재배하여 연간 약 4만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안동시장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는 국내 사과산업 발전과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향우신문, 2012년 6월3일 2면 인용)

풍산 종친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오주씨 선출



권오주 씨

풍산종친회(회장 권오주)는 지난 7월 1일 오전 11시, 안동 황우둔가든에서 권중인·영주·무열 고문을 비롯해 남여족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주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이어 권오주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권

재주 안동종친회장, 권인찬 안동종친회 부회장, 김백현 전 안동시시장의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권재주 안동종친회장의 축사 가 있을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오주씨가, 부회장에 권호명·오신·오연·영기·택승·영철·영숙씨가 감

사에 권용구·기원씨가 각 선출되었으며, 권오주씨의 신임회장 인사로 회의 를 모두 마쳤다. (권혁세 기자)

권문의 인물을 찾아서 ⑩

해외 진출로 제2도약을 하고있는

태림그룹 鈺坪 권기욱 회장



△기욱 태림그룹회장의 직무장면

'높고 푸르고 넓게 세계를 향하는 기업육성' 을 '나의 회사와 국가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사훈의 창립정신으로 89년 9월 (주)제일산업으로 창립해 이어 93년1월 태림종합건설(주)로 상호 변경해 해외진출로 제2도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태림그룹 우평(鈺坪) 권기욱(權奇勳)회장[61. 안동, 북야공과 36世, 태림종합건설 (주)회장]을 지난 7월11일 찾았다.



△93년 1월경, 부친 권오석, 기욱 현 회장 가족 등(오른쪽부터)이 태림창립 기념테이프를 끊고 있다.

1952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서 명문집안인 권오석씨 류시용여사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대구 지역 개발학과와 사회개발대학원, 고려대 인재개발대학원을 수료하고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양성적인 기업인으로 장차 대기만성 하라는 입지(立志)로 건설회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주)제일산업을 창립, 신생회사인데다, 건설계 인맥조차 없던 그는 사업초반엔 현장에 나가 수준 미달의 기술자들 뒤치다꺼리 하기에 바빴다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구공포 바닷가에 학교 짓는 일로 시작해 연평도와 강릉 비행장 근처에 군부대 숙소 짓는 일을 했는데 1995년 마무리 준공을 했다. 그리고 어려울때 수주가 하나 둘 들어와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겸손해 하는 권 회장은 현재까지도 무차입(無借入)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선 정부 발주 공사만 100% 수행하며 안정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만 진출한 탓에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이끌 수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년 회사를 운



△2003년 5월경 한민족 사랑나누기 운동본부 부총재로서 기념축사

영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한 번도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 초반엔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속이 타는 적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현재의 태림이 존재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림종합건설엔 오랜 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들의 성장이 곧 태림종합건설의 역사인 셈입니다. 태림종합건설은 양주시, 포항시 하수관 정비공사, 울진, 오산 항 건설공사를 비롯해 최근엔 경북대학교 기초학문연구소동, 한화협력연구관 신축공사 등을 완공했다. 경북 영천지구 생태화천 조성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07년엔 개성공단에 부지를 확보해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을 시작했다. "개성공단 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시작한 일이었지요, 공장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개성에 10여개 건설업체가 들어와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철수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곧 보상받을 시점이 도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일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워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그는 중소건설업체의 미래는 해외시장에 달려 있다고 판단, 해외로 나가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베트남에서 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시설이 미비한 베트남에서 태림종합건설은 폐수처리시설 및 소각로 등 국가가 집행하는 환경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나그랜드 주정부와 지난 3월 합작법인을 설립해 정부 발주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 현지 영업력이 결합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권 회장은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주)태림에너지는 초절전 전기보일러, 재활용연료보일러는 타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3배 이상 뛰어나며 환경 전문기관의 성능시험결과 유해배출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환경 친화적면에서 업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국 사우나 참 숫자 100여



△금년 1월25일자 건설경제지 대서특필 게재된 기욱 회장

곳 시공과 조달청, 농림부, 한국기술시험원에 등록 접수 중에 있다. (주)지타운 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태림종합건설(주)개성영업소는 개성공단에 아파트공장 신축매매 등 건설부동산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 공업용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겠다." 는 생활신조와 진실과 양심적인 삶을 남에게 받은 은혜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답,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의 목표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다. 다수의 감사패와 위촉장을 받았으며 솔직 담백하고 쾌활한 성품의 기업인 권 회장은 고려대학교 인재개발대학원 회장, 평통자문위원, 민간경제인 교류협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민족 사랑나누기 운동본부 부총재(외교통상부)등을 역임하면서 이 나라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안동권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서울청장년회 제7대 회장을 역임했다. 부친 권오석씨는 전(前) 북야공과회회장으로 오문(畝門)문사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권기욱 회장은 현(現)지타운건설 회장, 태림건설(파주야랜드)회장, 태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태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태림종합건설 개성레미콘 회장으로 태림그 룰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슬하에 부인 김영순(58)여사와 사이에 일남(一男)을 두고 있다. (연락처:010-5288-6080) (글 권오복 사진 권범준)

단 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권영빈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예진흥기금(250억·부족분)을 확보하는 문제가 올 연말 대서공약의 하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 ▲유럽발 재정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상무)이 25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은 16일 서리한 나이프 빈 앞몰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조문사절단장 자격으로 대통령특사로 임명돼 18-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 ▲권영진 전의원이 지난달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그동안 부족했지만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과 기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른 정치를 향한 소신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권택기 전의원은 15일 오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룰 변경에 관한 회동에서 이재오 의원 대리원으로 참석해서 조찬을 함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권숙일 서울대 명예교수(77·물리학)가 대한민국 학술원 제34대 부회장에 선출됐다.
- ▲삼성 디스플레이는 경기도 기흥사업장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